

제2기 기후환경리더 양성과정 종강식 총평

【 종강을 맞이하여 】

수상자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비록 수상을 하지는 못했지만, 다른 아흔 세 명의 기후 제안도 그 내용이 탁월하고 수상작과 견주어 하등,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흔히들 시간을 쏘아놓은 화살, ‘광음여시’(光陰如矢)라고 합니다만, 정말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작년 9월 19일에 바로 여기에서 여러분과 기후 도원결의 같은 개강식을 가졌는데 벌써 4개월이 훌쩍 지나 수료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2022년이 가고, 2023년이 찾아왔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2022년은 어떤 한 해였습니다.

2022년이 저한테는 아주 자랑스럽고 보람찬 한 해였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게 바로 여러분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기후환경리더 양성과정이 여러분에게도 잊지 못할 한 해를 선물해줬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격려하는 의미에서 큰 소리로 “Fighting” 한 번 외쳐 봅시다.

제가 기후변화를 이야기할 때, 자주 언급하는 한 소녀가 있습니다.

스웨덴의 그레타 툰베리입니다.

저는 아직도, 2019년 유엔총회에서 만났던 그 소녀의 결기 어린 눈빛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햇수로 4년 전입니다만, 그 짧은 시간 사이에 그레타 툰베리는 기후변화에 맞서는 미래세대의 선구자처럼 세계인에게 각인되었습니다.

기후변화하면, 자연스레 그레타 툰베리가 떠오를 정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레타 툰베리와 같은 미래세대가 나와서 쏠 세계에 기후위기 경각심을 일깨웠다는게 너무 신선하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했습니다.

‘스웨덴이라는 나라는 그런 환경리더가 나올 수 있는 곳이구나’ 그런 생각에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당차게 자신의 미래를 수호할 줄 아는 환경리더들이 반드시 나올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청년들의 역량과 자질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최고의 수준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중에서도 튼베리만큼 환경에 대해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있는 청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가장 큰 차이는 자신의 잠재력을 어떻게 평가하고 발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신에게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잠재력이 있다고 스스로 믿는가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학생들에게도 자신이 얼마나 큰일을 이룰 수 있는 존재인지를 알려주기 위해 이 기후환경리더 양성과정을 처음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여러분들이 학교 시험과 과제에 매우 바쁜 와중에서도 이 양성과정에 아주 적극 참여해준 것 같아 너무 뿌듯하고 고맙다는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2기 기후환경리더들의 실천 결과를 들었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환경으로 전 세계를 놀라게 할 때가 머지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이 축구로, 문화로, K-Pop으로 세계에서 인정을 받았으니 이제 환경으로 인정을 한 번 받아봅시다.

몇 년 지나 수천 명의 기후환경리더들이 모이게 된다면, 전 세계가 우리 기후환경리더들을 주목할 때가 올 겁니다.

그런 순간을 맞이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자신의 잠재력을 믿고 실천하는 자세를 흔들림 없이 견지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기성세대가 단순히 미래 세대에게 기후변화에 대한 지식을 주입하는 것만으로는 기후위기에 근본적으로 대응할 수 없습니다.

요즘 여러분을 MZ세대(Millennials and Generation Z)라고 많이들 부르는데 이 MZ세대라는 말이 기성세대에 반발하는 집단을 지칭하는 단어로 잘못 회자될 때는, 내심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이 MZ세대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표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MZ세대를 Motivated and Zealous Generation 즉, 자신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알면서 변화를 이끌어가기 위해 주도적이며 의욕적으로 움직이는 세대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환경으로 인정받는 날이 오기까지 자신의 잠재력을 믿고 끈기 있게 부딪혀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 총 평 】

■ 넷제로 실천 관련,

2기 양성과정을 전반적으로 둘러보면, 먼저 여러분이 기후환경리더로서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16가지 환경 활동을 넷제로 미션을 통해 체득했으리라 생각합니다.

플라스틱제품 줄이기, 일회용품 사용 자제 등 여러분이 진행한 넷제로 실천은 일상생활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양성과정을 마치면서, “오늘 내가 기후환경리더가 되었을까?” 궁금하다면 내가 넷제로 실천을 지속하고 있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리더로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자신의 말을 책임지는 행동입니다.

기후환경리더로서 목소리를 내는 것과 더불어 생활속에서 진정성 있는 넷제로 실천 행동을 통해 스스로 진정한 리더임을 증명해 나가야 합니다.

■ 제안발표 관련,

방금 전 우리가 함께 들었던 일곱 학생의 발표가, 여러분이 함께 토론하며 서로의 피드백을 받아 완성한 발표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있게 생각됩니다.

K-Pop, 환경범죄, 그린뉴딜, 환경복권, 순환경제, 제로캠퍼스, 경제학에 기반한 플랫폼까지 다양하고 우수한 발표, 정말 훌륭했습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탄소중립에 대해 연구하고 토론하면서, 수많은 허점이 존재하고 힘든 과제가 많다는 것을 절감했을 것입니다.

탄소중립 선언을 통해 목표는 설정했지만, 2050년까지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이 부족한게 사실입니다.

탄소중립에 대한 논의가 정부로부터 시작하여 기업, 시민단체, 그리고 민간부문에 이르기까지 이슈화되고 합의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번에 여러분이 만든 제안서를 묻어두지 마시고 스스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완성해서, 언제 어디서든 분명하게 피력하고, 공감을 얻어내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의 제안과 신념을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겠습니다.

■ 기후행동 관련,

제가 국제 원로그룹 The Elders의 부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작년 8월에 The Elders를 대표해 우크라이나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후환경리더 수료자 모임 이름을 The CELders(더 셀더스)로 해서 그린캠퍼스 만들기에 도전한다고 한다니 참 기특했습니다.

나중에 The Elders에서도 활동하는 글로벌한 리더가 될 수 있지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 The CELders : Climate Environmental Leader의 약자, 기후환경리더 양성과정 수료자 모임(학생 아이디어와 투표로 결정됨.)

실제 환경문제에 뛰어든 많은 청년이 현실의 벽에 부딪혀 포기하는 경우를 자주 봤는데, 기후환경리더 1기와 2기가 톡톡 뭉쳐서 대학생 환경인식과 대학의 환경교육현황을 조사하고 공개하는 활동에 참여해서 대학을 움직일 방법을 찾아 도전한 점을 높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번 2기 학생들의 약 40%가 양성과정을 계기로 이미 다양한 환경분야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고 들었는데, 기후변화 최대 피해국인 방글라데시 환경 NGO에 취직하여 환경운동을 전개하기도 하고, 환경동아리를 직접 설립해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학내에 도입하고, 환경 플랫폼 개발까지 하고 있다니 정말 저도 큰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은 들은 것은 20%, 본 것은 30%, 보고 들은 것은 50%를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고 듣고 행동한 것은 80%를 기억한다고 합니다.

환경문제가 보고 들을 때까지만 해도 완전히 나의 문제가 아니었다면, 기후환경리더 양성과정을 통해 action을 취하였으니 이제는 환경문제가 나의 것으로, 나의 문제로 많이 와닿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말 훌륭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 당부의 말씀 】

여러분이 처음 신청서를 제출할 때를 생각해보면, 그 이전부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목소리를 내오던 사람도 있지만, 먼발치서 바라보며 생각만 하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무엇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양성과정을 통해 시작해보자 생각하고 참여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한 계기는 각자 달랐을지라도 기후환경리더로 양성된 지금, 다 같은 선상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기후리더로서 기후위기에 맞설 것인지, 아니면 예전으로 돌아가 기후방관자로 행동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을 했다면 확실히 해야 합니다.

기후변화를 해결하는 것은 새로운 세상을 짓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현재의 지도자들이 쥐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기후위기에 가장 큰 위협을 받는 세대인 여러분의 말을 듣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은 그러한 힘을 갖추어야 하고, 여러분이 기후정책 결정 과정에서 빠지면 안되게끔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대는 어느 때보다 더 제안할게 많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님 세대가 겪지 못한 기후변화와 함께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더 많이 알수록 더 많이 제안할 수 있고, 더 많이 제안할수록 기후위기 해결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사람들을 모아서 공론화할 방법을 찾아 나가기 바랍니다.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고 갈등을 창의적 사고 과정(Process thinking)으로 바라보십시오.

막상 공론화하면 다른 이들도 기후위기에 대하여 똑같은 질문과 생각을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감히 침묵을 깰 때, 그리고 우리가 충돌을 일으킬 때, 우리를 둘러싼 이들이 더 높은 수준의 생각을 갖고 기후문제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과 기후연대를 형성해서 정치인들을, CEO들을 압박하고 지도자들에게 1.5°C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이제 무관심과 현실안주에 단호하게 맞설 수 있는 용기, 넷제로에 도전할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후환경리더로 앞장 설 준비가 됐습니까?

그렇다면, 좋습니다.

목소리를 높이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미래를 위해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언제 어디서든 여러분을 돕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